

2014년 대비 9급 공무원 사회

경향분석 및 학습방법

교수 : 정 은 주

 베리타스고시학원

경향분석

■ 사회·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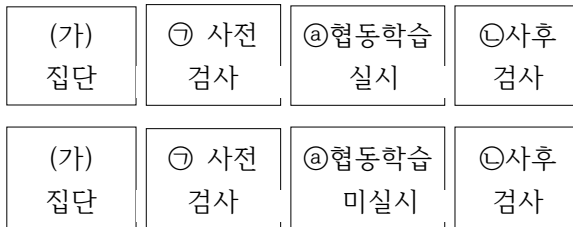
사회·문화는 일반적으로 수험생이 가장 다가가기 쉬운 과목이다. 그러나 학문의 특성상 심도 있는 문제의 출제가 얼마든 가능하므로 대충 공부해서는 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때에 따라 개념의 이해도 측면에서 이과 출신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과목이기도 하다.

1. 구성

제 1 장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제 2 장	개인과 사회구조
제 3 장	사회 계층화 현상의 이해
제 4 장	공동체 생활과 사회제도
제 5 장	문화와 사회
제 6 장	현대사회와 사회변동

2. 출제경향

[문제] 다음은 ‘협동 학습’이 ‘공동체 의식’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간략히 나타낸 그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 집단은 통제집단이고, (나) 집단은 실험집단이다.
- ② ㉠에서는 독립변수를, ㉢에서는 종속변수를 측정한다.
- ③ (가) 집단보다 (나) 집단에서 사후검사 점수가 더 올랐다면 가설이 수용된다.
- ④ ㉡와 ㉤의 목적은 가설에서 설정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변화를 초래하는 원인 인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 다음 글의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 그림과 같이 문화요소의 변동속도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 (㉠)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사회 환경에 전통적인 가치와 규범 등이 부합하지 않게 되어 사회 구성원들이 혼란 상태에 빠질 수 있는데, 이를 (㉢) (이)라고 한다.

제1장 사회문화현상의 탐구 : 자료수집 방법 중 실험법의 이해
제3회 모의고사 기출

제5장 문화의 이해 : 문화지체 현상과 아노미
단원별 모의고사 기출

- ① ㉠은 사회변동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② 머튼에 의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 정도는 계층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
- ③ 뒤르켐은 ㉠의 발생 원인을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 간의 괴리라고 주장한다.
- ④ 선진화된 제도를 도입했으나 경제적인 문제로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에 해당된다.

[문제]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갑과 을의 관점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갑 : 사회 불평등은 필연적이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높은 보상을 해 주어야 그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해.

을 : 네 말이 맞긴 한데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어. 너의 말 중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불분명해. 그것을 누가 결정하지? 사회적 중요성과 그에 따른 차등적 보상이라는 것은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내세우는 구실에 불과해.

- ① 갑의 관점에 따르면, 사회계층 제도는 지배 집단의 이해와 가치를 반영한다.
- ② 갑의 관점에 따르면, 사회계층 제도는 개인과 사회가 최선의 기능을 하는 데 방해가 된다.
- ③ 을의 관점에 따르면, 기득권을 가진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계층 제도를 유지하고자 한다.
- ④ 을의 관점에 따르면, 사회계층 제도는 개인의 성취동기를 자극하고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충원하는 기능을 한다.

제2장 사회계층화 현상 : 기능론과 갈등론 제4회 모의고사 기출

■ 법과 정치

법과 정치는 2013년 들어 고등학교 교과편재의 개편이 있었던 과목이다. 2012까지 법과 사회라는 과목과 정치라는 과목이 합쳐져 법과 정치라는 과목으로 새롭게 등장했다. 그러나 내용은 달라진바 없으며 다만, 일부 개정된 민법 부분은 10월 출판되는 교재에 모두 서술되어 있다.

1. 구성

제 1 장	민주정치와 법
제 2 장	민주정치의 과정과 참여
제 3 장	우리나라 헌법과 통치구조
제 4 장	개인생활과 법
제 5 장	사회생활과 법
제 6 장	국제정치과 법

2. 출제경향

[문제] 다음 판례의 내용과 관계있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은?

구 『의료법』제21조 제1항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의료법」 제 69조는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에 대하여 진료기록부에 물리치료횟수 및 약품과 주사투여 횟수를 실제 시행횟수보다 과대 기재하는 등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행위가 진료기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진료기록부에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 문헌상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나 ‘허위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

- ①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②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③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④ 명확성의 원칙

[문제] 다음은 (가) 국가와 (나) 국가의 의원 선거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가) 국가와 (나) 국가의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 국가

정당	정당 득표율	의석수
A당	40%	60
B당	30%	40
C당	20%	0
D당	10%	0
전체	100%	100

(나) 국가

정당	정당 득표율	의석수
E당	40%	40
F당	30%	30
G당	20%	20
H당	10%	10
전체	100%	100

* (가) 국가의 선거구는 100개이고, 각 선거구 최다득표자가 의석 차지
 (나) 국가의 각 정당 의석수는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

< 보 기 >

- ㄱ. (가) 국가에 비해 (나) 국가에서 표의 증가성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ㄴ. (가) 국가에 비해 (나) 국가에서 합의제 민주주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ㄷ. (나) 국가의 선거제도는 우리나라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보다 소수당의 의석확보 가능성이 낮다.
 ㄹ. 비록 의석수는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가) 국가의 제도와 (나) 국가의 제도를 혼합하여 기초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제5장 사회생활과 법
 : 죄형법정주의와 파생원칙
 단원별 모의고사 및 전범위 모의고사 기출

제2장 민주정치의 과정과 참여 : 선거결과 정치상황 분석 단원별 모의고사 및 전범위 모의고사 기출

[문제] (가), (나)의 정치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국가는 자연과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가 모여 성립된 것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속하며, 양도하거나 대표될 수 없다. 국민들의 공통된 의지가 일반의지이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주권이기 때문에, 주권의 행사는 곧 공동 이익의 확보 과정이고 자유의 실현 과정이다.

(나) 입법부는 단지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 행동하는 파생적 권력에 불과하므로 이 입법부가 그에 주어진 신탁에 역행할 때, 그 입법부를 없애거나 변경할 수 있는 최고 권력은 아직 국민에게 있다. 목적에 명백히 무시되거나 위반되면 그 신탁은 반드시 철회되어야만 하고 이때 국민들은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곳으로 그들의 신탁을 새로이 옮겨서 부여할 수 있다.

- ① (가)는 간접민주정치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② (가)는 자연상태의 인간은 죽음과 공포에 시달린다고 보았다.
- ③ (나)는 정치권력을 입법권과 사법권으로 분립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④ (나)는 자연상태가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법이 없다고 보았다.

제1장 민주정치와 법
: 사회계약설
제1회 모의고사 기출

■ 경제

경제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다. 그렇게 느끼는 근본적 이유는 경제와 경제학의 구분의 명확히 하지 못해서 이다. 경제원론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으나 사회를 공무원 시험에 도입한 원래의 취지를 바탕으로 본다면 경제는 경제학에서 요구하는 함수적 이해나 수리적 계산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개념을 구조화 시키고 문제를 몇몇 섭렵한다면 쉽게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이다.

1. 구성

제 1 장	경제생활과 경제문제의 이해
제 2 장	경제주체의 역할과 의사결정
제 3 장	시장과 경제활동
제 4 장	국민경제의 이해
제 5 장	세계시장과 한국경제
제 6 장	경제생활과 금융

2. 출제경향

[문제] 다음 A 또는 B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우려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총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총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다.)

- A : 원자재 가격의 급등
- B : 소비 및 투자 증가로 인한 경기 과열

제4장 국민경제의 이해 : 총수요와 총공급 곡선의 변동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유형 구분

- ① A로 인해 생산과 고용이 감소한다.
- ② A의 경우 총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 ③ B로 인해 생산과 고용이 증가한다.
- ④ B에 대한 대책으로 제한인을 인하를 들 수 있다.

문 7. 다음은 A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변화된 B재와 C재 시장의 모습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모든 재화는 정상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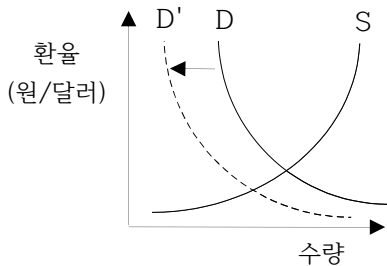
구분	B재	C재
가격	상승	하락
수요(량)	증가	감소

- ㄱ. A재와 B재의 관계는 승용차와 휘발유의 관계와 같다.
- ㄴ. A재와 C재의 관계는 '핑 대신 닭'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 ㄷ. A재와 C재의 교차탄력성은 음(-)의 값을 갖는다.

※ 교차탄력성 : 한 재화의 수요(량)변화율을 다른 재화의 가격변화율로 나눈 값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문제] 다음 그림과 같은 국내 외환 시장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단, D와 S는 각각 달러에 대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다)



- ① 국내 물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 ② 대미수출이 증가할 때 나타날 수 있다.
- ③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 ④ 내국인의 미국 국채 매입 감소가 한 요인일 수 있다.

제3회 제5회 모의고사
기출

제3장 시장과 경제활동 :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이해를 통한 수요의 교차탄력성
제3회 제4회 모의고사
기출

제5장 세계시장과 한국경제 :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환율변동
전범위 모의고사 및
제2회 모의고사 기출

II 학습방법

1. 내용정리 하지 말고, 주텍스트 만들자!

내용 정리하는 시간에 문제를 좀 더 푸는 것이 낫다. 정리가 정리를 낳는다. 따라서 정리를 하면 대부분 끝까지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정리한 것이 썩 맘에 들지도 않는다. 처음에 교재를 하나를 선정해서(물론 교재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합격하는 날까지 보는 것이 옳다. 그런데, 아무리 완벽한 교재를 선정한다고 해도 부족한 점은 있게 마련이다. 따

라서 자신이 선택한 교재에 살을 덧붙여 나가고, 결국 그 텍스트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메인 정리노트가 되는 것이다.

2. 오답노트 필요 없다. 의문노트 만들자!

고등학교 때를 돌이켜 보면 공부 좀 하는 아이들은 오답노트를 만든다. 그러나 이 오답노트는 별 실효성이 없다. 틀린 문제 정리는 역시 메인텍스트에 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의문노트이다. 한번 몰랐던 것은 대부분 해결 될 때까지 모르게 된다. 따라서 문제를 풀다보면 역시 같은 곳에서 막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문점을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려 주는 좋은 단서이므로 반드시 노트에 적어 선생님을 통해 빠른 시간에 해결해야 한다. 작은 개념이어도 상관없다.

3. 예습은 필요 없다. 복습만 철저히!

모르는 상태에서 예습은 수업에서 집중도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들어본 용어이므로 자신이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차라리 복습에 시간을 투자하자. 많은 시간을 요하지도 않는다. 사회는 딱 하루에 한 시간만 투자하자! 문제는 그 한 시간의 안배를 어느 시점에 하는 것이냐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수업 직후 한 시간이다.

4. 목차중심 학습개요 잡자!

일을 척척 잘 해내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일사분란하게 일을 처리한다. 예컨대 요리를 처음 하는 사람은 결과물은 별로인데도 부엌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기 일쑤이나 베테랑 요리는 깔끔하게 부엌을 정리해 나가며 빠르고 맛있게 조리한다.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 능숙한 요리는 일의 순서를 이미 머리에 숙지하고 구조화 시켜놓았기 때문이다. 공부도 마찬가지다. 특히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학습을 구조화 시키는 지가 시험의 당락을 결정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목차를 중심으로 개요 잡기에 집중해야 한다.

5. 사회는 개념이다!

공부를 좀 한 장수생들도 개념은 약하다. 오랫동안 공부했음에도 개념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를 종종 본다. 공부하는 사람, 특히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뭘~대충 그런...'으로 넘어가선 안 된다. 우리의 시험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 평가이므로 누구보다 명확히 그 개념을 말로 풀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준비 했을 때라야 시험현장에서 어떤 말로 수험생을 꼬셔내도 속된말로 '낙이지' 않는다. 특히 사회과에서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수업 중 끊임 없이 강조할 내용이다.